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호르무즈 · 고용지표 관망 속 미국증시 혼조 마감

- 미국증시 혼조..다우는 이틀째 사상 최고가 경신
- ADP 민간고용, ISM 서비스업 지수 모두 '예상 하회'
- 주요 기술주: 실적 등 개별 이슈 따라 희비 갈려

Summary

미국증시 상승

현지시각 8월 5일 수요일 미국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이어지고 있는 기업별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앞둔 가운데 예상을 하회한 ADP 민간 고용, 또 확장 구간에서 상승했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한 ISM 서비스업 지표 등을 반영하며 지수별로 혼조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49% 상승해 54,349.12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7,723.55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83% 하락한 26,363.44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83% 하락. 러셀2000 지수 역시 0.59% 하락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6.00% 하락.

다우지수는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

(다우 +0.49%/ S&P500 -0.17%/ 나스닥 -0.83%/ 러셀2000 -0.59%)

ADP 민간 고용 '예상 하회'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가 이날 7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 데이터를 공개. 7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은 전달 대비 4만 4,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치 7만 5,000명을 크게 하회한 수치이며 6월에 기록한 증가 폭 9만 5,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임금 상승률은 기존 직장에 머문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4.4% 상승했지만 신규 구직자의 경우 7.0% 상승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전일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에 이어 이날 ADP 민간 고용도 예상을 하회해 뜨거운 고용시장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위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다소 약화. 시장의 눈은 오는 7일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로 옮겨갈 전망.

ISM 서비스업 PMI 확장국면..예상은 하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해 발표한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11)는 54.1을 기록해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 한편 위축과 확장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25개월 연속 상회. 다만 시장 예상치 54.5는 하회. 헤드라인 수치보다는 세부 항목 중 고용 지수와 가격 지수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고용 지수는 전달 51.2에서 3.8포인트 낮아진 47.4로 집

계돼 한 달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진입하며 위축과 확장의 경계에서 다소 둔화된 고용 시장 분위기를 반영. 가격 지수는 70.3으로 전달 67.7 대비 2.6포인트 상승, 1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이 부분은 이날 국제 금리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물가와 관련해서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공개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 현재는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본다”고 말함.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쿡 이사는 지난달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지만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이날 발언으로 시사.

개별 종목 이슈에 대형 기술주 등락 엇갈려

전일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강한 상승을 보였던 AI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이날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종목별 이슈를 반영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임. 구글에서의 AI 관련 핵심 인재 이탈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부분, 스페이스X가 전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엔비디아 프로세서만 데이터센터에 이용하겠다고 밝힌 부분, 또 메타 플랫폼스가 AI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를 출시했다는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내 AI 개발에 오픈 AI의 GPT-5.6 Sol을 채택했다는 소식 등이 관련 종목 등락에 영향을 미친 이슈.

특징종목

소재(+1.54%), 헬스케어(+1.34%), 금융(+0.26%), 부동산(+0.15%) 등이 S&P500 업종 내에서 상승권에 머물렀음. 통신 서비스(-2.39%), 에너지(-2.03%) 섹터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유틸리티(-1.00%), 소비자 내구재(-0.32%) 섹터도 하락 마감.

대형 기술주, 개별 이슈 따라 등락

구글 모회사 알파벳(-4.03%)은 지난 15년간 회사의 AI 연구를 이끌어왔던 제프 딘이 회사를 떠나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 가운데 하락. 지난 6월 노암 샤지어, 존 점퍼, 요나스 아들러, 알렉산더 프리첼 등 주요 AI 연구진이 이미 회사를 떠난 가운데 이번에도 핵심 인재 중 한 명이 회사를 이탈하게 돼, 시장은 알파벳의 AI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 한편 구글 딥 마인드 최고 경영자인 데미스 허사비가 CEO 자리에서 내려와 알파벳 최고과학자 역할을 맡게 되며 코라이 카부크추오글루 수석 부사장이 딥마인드 수장직을 이어받을 계획.

엔비디아(+3.44%)는 스페이스X(-13.61%)의 전일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대감으로 반영, 2개월만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 테슬라 CEO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AI 컴퓨팅 플랫폼이라 생각한다며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함. 나아가 향후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AI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엔비디아 GPU 대규모 도입에 대한 기대는 스페이스X 주가에는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했지

만 엔비디아에는 기대 요인이 됨. 스페이스X(-13.61%)는 전분기 실적 호조에도 자본 지출 확대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이어질 대규모 랍업 물량 해제에 대한 수급적 우려가 겹쳐 급락.

한편 AMD(-7.04%)는 전거래일 마감 이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엔비디아 힘을 실어준 머스크의 발언에 낙폭을 확대.

메타 플랫폼스(+0.14%)는 자사의 첫 AI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 '뮤즈 코드'는 메타의 최신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 1.2'와 함께 작동하며 코드 작성과 수정, 검증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을 지원. 메타는 이 서비스를 종량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입력 토큰 100만개 당 1.25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 당 4.25달러의 API 요금이 적용됨. 메타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AI 코딩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 다만 주가 움직임은 이에 큰 감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다 강보합에 마감.

마이크로소프트(-1.09%)는 사내 AI 개발에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5.6 SoL을 기본 모델로 채택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급등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약세 마감. 앞서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했으며 시장의 고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음.

아마존닷컴(-1.72%)은 제프 베조스 창립자가 약 41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닷컴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일에 이어 이틀째 하락.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5.40%)는 데이터센터 메모리 제품의 강력한 수요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고 밝힘. 전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372% 급증했고 시장 전망치도 대폭 상회. EPS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음.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도 강화한다고 밝힘. 다만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16% 가까이 상승했고 향후 가이던스가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강력하게 뛰어넘지 못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이상 하락.

웨스턴 디지털(-5.36%)도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

시게이트 테크놀로지(-0.9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06%), SK하이닉스(ADR, -2.17%) 등 이외 메모리/스토리지 관련주도 대체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이날 정규장에서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가리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거래일만에 하락, 1.40% 약세 마감.

이외 특징주: 실적이 주 재료

일라이 릴리(+4.86%)는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48% 성장했으며 매출총이익률은 85.8%를 기록했다고 밝힘. 기대 이상의 성장에 힘입어 회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월트디즈니(+3.65%)도 전분기 실적이 대체로 기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영업이익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 대비 컸고 연간 실적 가이드선과 자사주 매입 규모도 유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16.98%) 역시 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고 현재 진행 중인 분기 매출 성장 역시 시장 예상 26.5% 성장보다 강력한 30% 수준을 보일 것이라 전망, 주가가 급등.

우버 테크놀로지스(-5.29%)는 전분기 실적이 견조했고 차량 호출 사업의 성장성 역시 탄탄함을 확인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3분기 실적 가이드선에 하락.

헬스케어 업체 CVS헬스(-5.08%)는 전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고 연간 실적 가이드선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연방 약가 할인 제도인 340B 프로그램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 한편 CVS는 GLP-1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힘. 보험 적용과 자비 부담 결제 옵션을 통해 FDA 승인 GLP-1 비만 치료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 일라이 릴리와 협력해 자격을 갖춘 환자에게 CVS 헬스 앱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 2026년 4분기 초까지 약 9,000개 CVS 약국에서 당일 수령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애플(-0.45%)은 전분기 매출이 예상을 살짝 하회한 실망감에 시간외 거래에서 20% 가까이 급락. 아이온큐(-4.29%)도 전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온라인 전자 상거래 업체 이베이(+1.40%)는 예상보다 좋은 전분기 실적과 중고 의류 플랫폼 디팝 인수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 시간외 거래에서 2% 내외 상승.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2.44%)는 미국 내 여행 수요 강세에 힘입어 연간 실적 가이드선을 상향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

화장품 업체 엘프 뷰티(-1.67%)는 관세 환급 효과로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보험권 마감

국제유가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이틀간의 급락에서 벗어나 보험권에 거래를 마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함. 그는 48시간 이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 사이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힘. 물론 이란 외무차관이 최근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관측에 선을 긋기도 했으나 이날 미국과 오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 항로와 지리적 좌표에 합의, 해협 재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은 유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 다만 합의가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상당 수가 이란의 관리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이란의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

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연결돼 유가 하락을 방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0.7% 하락, 배럴당 75.22달러에 마감.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0.21% 오히려 상승, 배럴당 79.45달러에 마감.

국제 금가격은 최근 4,000달러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 4% 가까이 상승하며 온스당 4,305달러선까지 상승. 금값이 4,300달러선을 넘어선건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 은 선물 가격도 4% 가까이 상승해 온스당 62달러선을 회복.

국채금리 소폭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대체로 사흘째 하락세를 이었지만 낙폭은 미미.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안정으로 이어져 국채 금리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유지. 또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도 금리 하락 요인. 다만 이날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세부 지표에서 물가 압력이 심화되는 조짐이 포착, 금리 하락을 제어함.

2년 만기 미 국채금리 1.1bp 하락한 4.1812%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6127%로 전일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음. 30년물 금리는 0.6bp 하락한 5.1680%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중반대로 전일 대비 낮춰 반영.

달러 가치 소폭 하락

미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은 유가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로 강세 요인. 전일 5거래일만에 약세 전환했던 엔화 가치도 이날 하루만에 다시 소폭 강세로 돌아섬. 이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17% 하락한 99.688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 중 10원 이상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8.00원 하락한 1,424.50원에 마감. 뉴욕 차액 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45원)를 고려하면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05원 하락, 1,421.0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